

순창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선정

지역문화예술단체에 청년 5명고용, 청년문화인력양성 기회

순창군이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문화인력 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 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등 3가지 유형별 특성에 맞게 청년창업 및 취업을 지원한다.

순창군은 민간취업연계형 사업인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선정돼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선정된 사업은 지역문화예술단체에 청년인력을 배치해 문화행사 및 홍보, 프로그램 기획 지원 등의 업무 경험을 통해 청년 문화인력 양성의 기회로 활용하고 지역향토문화 융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또한 청년들의 지역정착 유도 및 유출방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



순창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고 있다. 사업 참여 자격은 관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며, 군은 5명의 청년인력을 선정해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에서 일할 수 있게 배치할 계획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지역에 젊은 청

년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실정에 맞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해 청년 일자리가 넘치는 지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유모차 살균소독 하고 가세요"

순창군보건의료원 현관에 살균기 설치

순창군이 아이들의 건강과 부모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유모차 소독 서비스를 제공해 이목을 끌고 있다.

4일 순창군에 따르면 유모차는 아이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세균번식 등 오염이 될 수 있어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소독은 자외선, 분무·적외선건조로 이루어지며 약 2-3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유모차소독기는 보건의료원 현관에 설치되어 있으며 방문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유모차는 물론 어른신들이 이용하는 보행기·휠체어도 소독이 가능하며, 주민들에게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순창군은 이외에도 출산가정에게 20만원 상당의 마더박스 제공과 이유식의자, 산모미역제, 육아놀이교실 등 출산장려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영근 보건의료원장은 "다양한 출산장려시책과 육아환경 조성에 노력해 아이낳기 좋고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이 아이들의 건강과 부모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유모차 소독 서비스를 제공해 이목을 끌고 있다.

지역 매아리

남원소방서, 수방장비 일제점검

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구축, 피해 최소화를 위한 풍수해 취약대상과 수방장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남원·순창 관내 풍수해 취약대상은 침수이력 및 고립위험지역 8곳, 붕괴위험시설 및 지역 7곳, 야영지역 4곳, 낙뢰 피해대상지역 1곳 등 총 20곳으로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또한 서가 보유하고 있는 압수기 6대, 수중펌프 12대, 고무보트 8대 등 풍수해 대응장비에 대해 유사 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100% 가동상태를 유지할 방침이며, 재해 예상지역의 노후주택·축사 등 위험 시설물 확인 및 인원·장비 재배치, 관할 시·군청 수방장비 보유현황 파악, 풍수해 상황판 편성 및 운영, 풍수해 대응기관 비상연락망 확보, 수방장비 작동점검 및 고장여부 확인, 수방장비 관리방법 및 조작법 훈련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용주 남원소방서장은 "시·군청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국가지점번호판 확대

임실군은 오봉산, 회문산 등산로 주요 지점 33개소에 등산객의 안전을 지켜줄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는 경찰·소방 등 기관별 및 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장교육도 병행, 추진한다. 농기계 수리를 원하는 농가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지정된 장소에서 고장 수리시 부품 1만 원 미만은 무상수리 되고, 초과된 부품비용만 농가가 납부하면 농기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도로명주소가 없는 산악지역에 위치를 표시, 재난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 119로 국가지점번호를 알려주면 정확한 위치파악이 가능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구급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설치한 국가지점번호판이 임실의 산을 찾는 많은 등산객의 안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산악지역, 저수지제방 등의 비거주지역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면소재 경제성장 거점 육성 박차

삼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추진

임실군이 농촌지역 면 소재지를 경제성장 거점으로 육성 중인 가운데 삼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에 본격 착수했다.

군은 4일 삼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삼민군수를 비롯한 군의회 의원, 추진위원, 이장단, 부녀회 및 마을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공모신청한 예비계획서 내용을 점검하고 기본계획 추진방향 및 향후 일정을

설명하고 문화복지거점 도약을 위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촌지역 소재지에 교육, 의료, 문화, 복지, 경제 등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배후마을을 연결하여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농림부 지원 사업이다.

삼계면에 2021년까지 총 59억여원을 투입해 민속문화전수관 리모델링과 작은 목욕탕 조성, 소재지 가로경관 및 통학로 정비 등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한

다. 또한 문화복지프로그램 지원과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삼민 군수는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삼계면 소재지 지역주민의 행복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6기부터 추진 중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이어 민선 7기에도 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해 기초생활거점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남원시는 4일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남원시·순창군 사회복지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통합사례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북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찾아가는 강연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라북도 4관역 시군에서 진행 중이다. '사회복지대상자 + 행복을 중심의

실천방안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임광대 사회복지학과 조인주 교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제 취약 가구들의 사례를 가지고 1부는 팀장 30명을 대상으로 2부는 실무자 70명을 대상으로 팀장과 실무자에게 맞춤형으로 현장 중심 강의를 통해 교육대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